

감탄사 ‘응’과 ‘어’ 사용에 나타난 사회언어학적 변이 연구*

강현석* · 김민지**

Abstract

Kang, Hyeon-seok & Kim, Minji. (2022). "A Sociolinguistic Variation Study of Korean Exclamations ‘eung’ and ‘eo’".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30(4), 1-31. This article examines the variations found in the use of ‘eung’ and ‘eo’ in TV dramas and their scripts. Five series of TV drama televised during the 2010s were used as the data for this study, and 3,202 tokens of {eung} and {eo} were collected from the data.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Goldvarb X and LVS (Language Variation Suite). Nine variants of {eung} and six variants of {eo} were observed in the data.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discourse function’ of {eung} and {eo} was the primary constraint influencing the variation examined. Age was analyzed as another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Older people used {eung} variants more often than younger people. This result may be taken to indicate either age grading or linguistic change in progress; further research based on careful methodology is in order for its accurate interpretation.

Keywords: ‘eung’ and ‘eo’, lexical sociolinguistic variable, discourse particle, regression analysis, discourse meaning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R-2020-00933).

* First Author: Hyeon-seok Kang, Professor, English Dept., Dankook University; 119 Dandaero Dongnam-gu, Cheonan, Chungnam, Korea; Email: hskang1@dankook.ac.kr

** Co-Author: Minji Kim, Assistant Professor, General Education College, CHA University; 120 Haeryongro, Pocheon, Gyeonggi-do, Korea; Email: minjikim@cha.ac.kr

Received 31 October 2022; Reviewed 8~28 November 2022; Accepted 1 December 2022

1. 서언

1.1. 연구 배경

한국어에서 흔히 사용되는 응답 표현은 경어체에서는 ‘예’와 ‘네’가 대표적이고 비경어체에서는 이에 대응되는 ‘응’과 ‘어’가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된다(이필영 1999; 송인성 2015; 전영옥 2015).¹⁾ 이 중 한국어에서 감탄사 및 담화 표지로 사용되는 ‘예’와 ‘네’는 화용적 의미와 기능 관점에서 또 사회언어학적 변이의 관점에서 선행 연구들에 의해 점검되어 어느 정도 연구 성과가 있었다. ‘예’와 ‘네’의 화용적 의미와 기능을 점검한 연구로는 김하수(1989), 이원표(1993), 전정미(2011), 이한규(2011), 임선희·김선희(2014), 송인성(2018) 등이 있고, ‘예’와 ‘네’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을 점검한 변이 연구로는 김혜숙(2009), 강현석(2009), 강현석·김민지(2017), 송인성(2019)가 수행되었다.

하지만 ‘예’와 ‘네’와 사용 대상(사회적 위계나 친소관계에서)에서만 다를 뿐 응답 표현으로서 거의 같은 기능을 갖고 비경어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응’과 ‘어’에 대한 연구 성과는 아주 드물다. ‘응’과 ‘어’를 전적으로 다룬 연구는 이들의 화용적 의미와 기능을 분석한 전영옥(2015)이 유일하고, 논문의 한 부분으로 이 둘의 화용적 의미와 기능을 점검한 연구로는 이필영(1999), 강우원(2002), 전영옥(2006), Pyun(2009)이 있으며, 사회언어학적 연구로는 ‘응’과 ‘어’의 성차를 논문 주제의 하나로 다룬 유형선(2004)이 있을 뿐이다.

본 연구는 한국어 언중들이 응답어로 흔히 사용하는 ‘응’과 ‘어’(이필영 1999)에 대한 이러한 연구 공백을 부분적으로 메우려는 시도이다.²⁾ 이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방영된 텔레비전 드라마의 영상 발화 자료와 대본 자료

1) ‘그래(요)’, ‘음’ 등도 응답 표현으로 사용된다(송인성 2015).

2) 세종 구어 발음치를 분석한 안의정(2006: 82)에 의하면 감탄사 중 ‘예’, ‘네’는 각각 5위와 6위, ‘어’와 ‘응’은 각각 1위와 7위의 출현 빈도 순위를 보였다.

그리고 ‘응’과 ‘어’의 사용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자들의 응답을 연구 자료로 해서, 추출된 ‘응’과 ‘어’의 사례들을 담화 기능별로 구분하고 또한 ‘응’과 ‘어’의 사회언어학적 변이를 점검하고자 한다. 즉 유형선(2004)이 제시하듯이 ‘응’과 ‘어’의 사용에도 ‘예’와 ‘네’의 경우와 같이 남녀 간의 성차(김혜숙 2009; 강현석 2009; 강현석·김민지 2017)가 나타나는지³⁾, 또한 ‘예’와 ‘네’의 사용에 나타나는 연령대 간 차이(강현석·김민지 2017; 송인성 2019)가 관찰되는지, 그리고 드라마 영상 발화 자료와 대본 자료 간의 차이점은 있는지, 설문 응답 결과와 실제 드라마 발화 분석 결과는 일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응’과 ‘어’의 사회적 변이와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의 논의

이필영(1999)와 Pyun(2009)이 지적했듯이 ‘예/네’와 ‘응/어’는 유사한 담화 의미와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예/네’에 대한 선행 연구는 본 연구의 주제와 연구 방향에 상당한 함축을 갖는다. 이에 이 절에서는 ‘예/네’의 사회적 변이를 다룬 연구들을 먼저 소개하고 ‘응/어’를 점검하는 본 연구에 대한 이들의 함축을 우선 논의한다.

김혜숙(2009)는 대학생들이 수업 시간의 출석 점검 시 대답으로 사용한 ‘예’와 ‘네’의 사용례(토큰(token))와 소설의 대화 부분에서 등장인물이 사용하는 ‘예’와 ‘네’의 사용례를 바탕으로 이들 감탄사의 사용에 나타나는 성차를 분석한다. 출석 점검에 대한 대답 자료 분석 결과, 김혜숙(2009)는 여학생은 절대적으로 ‘네’를 선호해서 사용하고 남학생은 상대적으로 ‘예’를 선호하지만 전반적으로 성차는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한다. 또한 후자인 소설 대화 자료에서도 여성 인물이 남성 인물보다 ‘네’를 상대적으로 더 사용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결과를 이 연구는 제시한다.

3) 강현석(2009)는 한국어 여성 화자들의 발화 특성 중 하나가 비음 선호라는 것을 설명하며 이것이 여성 화자들의 ‘네’ 선호 현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유형선(2004)도 여성 화자들이 같은 이유로 (부드럽게 들리는) ‘응’을 선호한다고 제안한다.

강현석(2009)는 텔레비전의 토론 프로그램(백분토론) 7회분의 실제 대화 자료와 12편의 영화 속에서 사용된 준구어 자료에서 추출한 1,372개의 사용례를 토대로 ‘예’와 ‘네’의 사용 양상을 점검하였다. 이 연구는 연구 자료의 사용례를 ‘예’와 ‘네’의 담화 기능, 화자의 성별, 나이, 방언, 화자-청자의 연령 관계 등을 잠재적 변인으로 해서 통계 분석에서 점검하였는데, 이 중 특히 화자의 성별과 화자-청자 간의 연령 관계가 ‘예’와 ‘네’의 변이적 사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여성 화자들이 ‘네’를 더 선호하고, 자신보다 손위의 청자에게 ‘네’를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또한 ‘예’의 변이형으로 ‘예’가 상당한 빈도(전체 사용례의 약 9.1%)로 그리고 드물지만(약 0.3%) ‘네’의 변이형으로 ‘네’도 사용됨을 보였다.

강현석·김민지(2017)는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바탕으로 ‘예’와 ‘네’의 변이를 연구한다. 총 1,754개의 사용례를 분석한 결과 무려 17개의 변이형(‘예’ 변이형 2개, ‘네’ 변이형 15개)⁴⁾이 발견되었고 ‘네’ 변이형들이 자료에서 절대적 비율(90%)을 차지하여, ‘네’ 변이형들이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 강현석(2009)의 (준)구어 자료와는 완전히 다른 변이 양상을 보였다. ‘예’ 변이형들은 사용 비율은 낮았으나 상대적으로 남성 화자와 중·노년층 화자가 더 높은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송인성(2019)는 텔레비전 드라마 50회분의 발화 자료를 바탕으로 ‘예’와 ‘네’의 사회적 변이를 점검한다. 화자의 성별과 연령 그리고 화-청자 친소관계/발화의 격식성을 외적 변인으로 분석하는데, ‘네’의 사용 비율을 보면 남자는 약 40%, 여자는 84%의 비율을 보여서 뚜렷한 성차를 역시 관찰했으며, 화자 연령 영향은 일관적이지는 않았지만 1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네’의 사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연구는 또한 대화 상대자 간의 관계가 친근하지 않을 때나 격식적 상황에서는 ‘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위에서 보았듯이 ‘예’와 ‘네’의 사용 시 가장 두드러지는 사회적 요인은

4) ‘예’의 변이형은 ‘예, 예’, ‘네’의 변이형은 ‘네, 넴, 념, 네, 념’ 등을 포함한 15개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네’를 높은 빈도로 사용한다는 것이고, 이보다는 강도가 약하지만 화자의 연령대와 발화의 격식성도 ‘예/네’의 사용 빈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실제 대화, 영화드라마 대본, 전자 통신 언어 등의 매체 유형에 따라서 또한 ‘예’와 ‘네’의 변이 양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선행 연구들은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그동안 이루어진 ‘응/어’에 대한 많지 않은 연구 성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기술한 대로 ‘응/어’만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전영옥(2015)가 유일하며, 나머지 연구들은 ‘응/어’를 연구의 일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이필영(1999)은 한국어 대화 중 이루어지는 대화 상대자의 여러 화행에 대한 응답 표현들을 긍정 응답 표현, 부정 응답 표현, 중립적 응답 표현으로 구분하며, 긍정 응답 표현으로는 ‘응’과 ‘예/네’, ‘그래’, ‘암, 그럼, 아무렴’을 들고 있는데, ‘응’과 ‘예/네’는 상대방을 높이는 정도에서만 차이가 있고 화용적 의미나 기능은 동일하다고 관찰한다(p. 77). 이 연구는 또한 ‘어’를 ‘응’의 한 변이형이라고 제안하는데(p. 78) 이는 ‘응’과 ‘어’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Pyun(2009)은 세종 구어 말뭉치 중 29개 파일에서 발견되는 ‘응’과 ‘예/네’의 출현 빈도와 의미를 분석한 후 ‘응’과 ‘예/네’는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담화 기능을 가지며 그 의미는 10가지, 즉 ‘positive response(긍정적 응답), continuer(청자반응신호), display of understanding(이해표시), hesitation filler(시간벌기), self-affirmation(강조), attention getter(주의환기), response to calling(부름에 응답), repair initiator(재발화요구), display of surprise or confusion(의문제기), confirmation seeker(이행요구)’로 구분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전영옥(2006)은 (감탄사를 포함한) 구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여러 어휘가 사전에 누락되어 있는지 대화에서 사용되는 그 의미나 기능이 충분히 사전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하며, 그 대표적 예로 네 가지 표현을 논의하는데 그중에 ‘응’과 ‘어’를 포함시키고 있다.⁵⁾ 이 연구는 특히 ‘어’의 주된 담화

5) 이 연구가 논의하는 나머지 두 예는 감탄사 ‘야’와 ‘음’이다.

기능을 ‘상대방의 말을 받는 말’로 규정하고, 추가적 주요 기능으로 말끝기/시간별기 기능, 상대방 말에 대한 반문 기능, 자신의 발화 내용에 대한 동의 요청의 기능을 또한 갖는다고 하였으며, ‘응’도 ‘어’의 모든 기능을 갖지만 말끝기/시간별기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제언하였다.

전영옥(2015)는 세종 말뭉치의 일상 대화 5개 파일, 수업토론 5개 파일, 대본류 7개 파일에서 발견된 ‘응’과 ‘어’의 사용례를 토대로 해서 이 두 감탄사의 담화 기능을 세밀하게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응’과 ‘어’의 담화 기능을 15가지⁶⁾로 세분하고 두 감탄사가 사용 비율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기능을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또한 ‘응’과 ‘어’는 모두 응답어로 사용되지만 두 감탄사 간의 차이는 ‘응’은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긍정답변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어’보다 높고, ‘어’는 상황이나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 발화 비율이 ‘응’보다 높다고 분석한다.

‘응’과 ‘어’에 대해 유일하게 사회언어학적 분석을 한 유형선(2004)은 10대와 20대 남녀 화자들의 발화 자료를 바탕으로 이 두 감탄사/담화표지의 사용에 나타나는 성차를 점검한다. 분석 결과 두 가지 양태의 성차가 보고되었다. 하나는 발화자 요인으로, 그 차이는 비록 크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남성은 ‘어’를 여성은 ‘응’을 더 선호해서 발화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더 뚜렷이 관찰된 요인은 청자 요인으로, 남성에게 발화할 때는 남성과 여성 모두 ‘어’를 선호한 반면에 여성에게 발화할 때는 남성과 여성 모두 ‘응’을 선호하여 발화하였다고 보고한다. 하지만 이 연구는 특정 연령대(10대와 20대 화자들)로부터 수집한 비교적 소규모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통계분석에서도 성

6) 전영옥(2015)는 ‘응/어’의 담화 기능을 세 부류로, 즉 타인의 발화에 대한 응답어로서의 쓰임과 자신의 발화 도중이나 끝에 나타날 때의 쓰임 그리고 상황에 반응하는 쓰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들 중 응답어로서의 쓰임은 ‘동의, 이해, 답변, 반응’으로 구분하고, 자신의 발화 도중/끝에 나타날 때의 쓰임은 ‘시간 별기, 응답 재촉하기, 강조하기’로 구분한다. 전영옥(2015)는 더 나아가서 ‘동의’는 ‘수용, 행위수용, 동의, 부분수용’으로, ‘이해’는 ‘확인, 이해불가/반문, 재확인’으로, ‘답변’은 ‘긍정답변, 답변보류’로, ‘반응’은 ‘반응발화, 감정적 반응’으로 하위 세분한다(참고로 이들 기능의 대부분은 ‘예/네’의 의미로도 선행 연구들에 의해 제안되었다(송인성 2018: 174)).

차에 관한 단순 비율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다양한 연령대로부터 수집한 더 많은 자료와 사용례를 토대로 하고 성차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 내외적 변인을 점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요약하면, 선행 연구들은 ‘예/네’와 ‘응/어’는 서로 담화 의미를 공유하고 화청자 간의 위계와 친소에 따라서 두 표현 쌍 중 어느 것이 사용되는지가 결정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전영옥(2015)가 보여준 바와 같이 ‘응’과 ‘어’는 담화 의미에 따라 사용 비율은 다소 다르지만 담화 내에서 같은 의미를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예’와 ‘네’와 마찬가지로 ‘응’과 ‘어’가 변이 이론에서 사회언어학 변수의 요건인 의미/기능의 등가(semantic/functional equivalence(Tagliamonte 2006))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응/어’는 ‘예/네’ 연구(강현석 2009; 강현석·김민지 2017)에서 ‘예’와 ‘네’가 사회언어학 변수(sociolinguistic variable)를 이루는 것으로 보았듯이 ‘응’과 ‘어’를 어휘적 사회언어학 변수(Geeraerts 2018)의 변이형으로 규정하고, 담화 의미라는 언어 내적 요인과 화자의 성별, 연령대, 청자의 성별, 매체 유형 같은 잠재적 언어 외적 요인 중 어떤 요인(들)이 이 둘의 변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변이 이론의 틀에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3. 연구 논제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 논제는 다음과 같다.

1. 유형선(2004)가 10대와 20대의 소규모 발화 자료를 분석한 결과대로 (‘예’와 ‘네’의 경우와 같이) ‘응’과 ‘어’의 사용에 있어서 남녀의 성차가 나타나는가?
 - 1) 남녀 발화자 요인: 남성 화자는 ‘어’를 선호하고 여성 화자는 ‘응’을 선호하여 사용하는가?
 - 2) 남녀 청자 요인: 발화자는 남성 청자에게는 ‘어’를 선호해서 사용하고 여성 청자에게는 ‘응’을 선호하여 사용하는가?
2. 선행 연구(전영옥 2006, 2015)는 ‘응’과 ‘어’는 동일한 담화 의미를 표현할 수 있지만 한국어 화자들은 각 의미를 표현하는 데 있어 이 두 변이형에 대한 선호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렇다면 담화 의미는 ‘응/어’의 변이에 있어서 언어 내적 제약으로 작용함을 의미하는데, 그 정확한 양태는 무엇인가?

3. ‘예/네’의 변이 연구에서 밝혀진 화자의 연령 요인(송인성 2019; 강현석·김민지 2017)이 ‘응/어’의 변이에도 영향을 주는가?
4. 드라마 영상에서의 발화 자료와 드라마 작가의 ‘응/어’ 변이에 대한 무의식적 지식이 반영된 대본 자료는 두 표현의 변이 양태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가?

2. 연구 방법

2.1. 연구 자료와 분석 대상

‘응’과 ‘어’가 한국어 화자들에 의해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연령적 관계를 가진 여러 화자가 다양한 상황적 배경 하에 등장하는 많은 실제 대화를 분석하는 것이 이 두 표현의 탐구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실제 자료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기존에 활용되었던 세종 구어 말뭉치를 활용하는 것(전영옥 2015; Pyun 2009)이다. 하지만 세종 구어 말뭉치의 일상 대화 자료는 ‘응’과 ‘어’의 화용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나 구축된 대부분의 자료가 20대 화자 간의 대화이고 소수의 10대와 30대 대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40대 이상의 일상 대화 자료는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⁷⁾ 또한 일상 대화의 장소가 거의 학교와 가정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대화의 상황적 배경이 다양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회언어학적 연구에는 이상적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응’과 ‘어’의 의미적 분포 및 사회맥락적 분포를 점검하기 위하여 아래 두 유형의 자료를 사용한다.

7) 세종 구어 말뭉치 중 일상 대화는 총 45개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20대 대학생 화자 간의 대화이다.

첫째 유형의 자료는 대략 100시간 분량의 텔레비전 드라마 발화 자료이다.⁸⁾ 텔레비전 드라마에서의 발화는 대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대화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서 ‘응’과 ‘어’의 다양한 화용적, 사회적 의미를 가장 이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생각된다. 강현석(2009)가 지적했듯이 대본과 실제 연기자의 발화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⁹⁾ 연기자는 대본을 바탕으로 연기하고 발화하지만 연출자나 작가의 동의를 얻어 애드리브를 할 수도 있고 대사를 다소 수정하여 연기하기도 하는데 특히 감탄사의 경우는 내용어(content words)가 아니기 때문에 연기자의 발화와 대본의 차이가 상당히 클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드라마 대본만이 아니라 실제 영상 발화 자료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즉 드라마의 대본과 영상을 비교해서 대본이 실제 발화와 다른 경우 대본 자료에 수정을 가하면서 영상 자료와 대본 자료의 ‘응’과 ‘어’의 사용례(tokens)를 각각 구축하였다.

‘응’과 ‘어’는 앞서 기술한 대로 대부분 비경어적 맥락에서, 즉 대화 상대방의 연령대가 또래이거나 아래이면서 동시에 친근한 관계일 때에 주로 출현하기 때문에 ‘예’와 ‘네’보다는 사용 맥락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¹⁰⁾. 따라서 본 연구는 주인공들이 10대나 20대의 친구나 연인 관계여서 비경어체를 많이 사용하고 또한 이들과 친근한 관계인 40~50대 이상의 인물(특히 부모나 학교 선생님)도 많이 등장해서 ‘응’과 ‘어’가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학교 드라마와 청춘 드라마 다섯 작품을 본 연구의 자료로 선택하였다. 이들은 모두 2010~2018년 사이에 방영된 것이다(<표 1> 참조).

본 연구의 또 다른 연구 자료는 ‘네이버 폼’을 활용한 ‘응’과 ‘어’의 사용에

-
- 8)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의 차이는 전자는 대사의 비중이, 후자는 영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데 있다. 따라서 언어 연구의 자료로는 대사가 많은 드라마 발화가 더 나은 측면을 지니며 일반적으로 변이형의 사용례도 더 많이 추출할 수 있다.
- 9) 강현석(2009)는 영화 발화 자료와 토크쇼 발화 자료를 바탕으로 ‘예’와 ‘네’의 사회언어학적 변이를 점검했는데, 영화 발화 자료와 영화 대본 자료를 비교한 결과 대본 자료에서는 ‘예’와 ‘네’의 비율이 44%대 56%였던 반면, 실제 배우의 연기 발화 자료는 74%대 26%의 비율을 보였다.
- 10) 예외적으로, 가족 간(형제간, 모녀/모자간 등)의 대화처럼 연소자가 연장자에게 발화하는 경우에도 ‘응/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대한 온라인 인식 조사(논문 끝부분의 [부록 참조]이다. 설문 대상자는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으로 나누어 각 연령대별로 20명 이상(남녀 각 10명 이상)을 목표로 해서 설문을 온라인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에 대한 제보자의 답변 내용은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해서 각 연령대의 그리고 남녀의 드라마 발화와 대본 대화 자료와 비교하였다.

〈표 1〉 연구 자료로 선택된 텔레비전 드라마의 정보 개요

드라마명	연도	작가	장르	주·조연 배우
공부의 신	2010(16부작)	윤경아	학교드라마	김수로, 배두나, 변희봉 외
넌 내게 반했어	2011(15부작)	이명숙	청춘물	박신혜, 정용화, 송창의 외
로맨스가 필요해	2012(16부작)	정현정	청춘물	조여정, 최여진, 최송현 외
후아유(학교2015)	2015(16부작)	김민정/ 임예진	학교드라마	김소현, 남주혁, 육성재 외
스카이캐슬	2018(20부작)	유현미	학교/사회드라마	엄정아, 이태란, 윤세아 외

2.2. 통계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자료 분석을 위해서 변이 이론의 전통적 통계 분석 도구인 골드바브 엑스(Goldvarb X(Sankoff, Tagliamonte & Smith 2005))와 Scrivener, Diaz-Camps & Orozco(2016)이 사회언어학 변이 연구를 위해 개발한 통계 패키지인 Language Variation Suite(LVS)를 사용한다. LVS는 여러 통계 분석 방법과 기법을 모아 놓은 웹 기반 통계 패키지인데, 여기에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더불어 컨디셔널 인퍼런스 트리(conditional inference tree)와 랜덤 포리스트(random forest), 그리고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등의 통계 기법을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비교적 쉽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¹¹⁾

11) 컨디셔널 트리와 랜덤 포리스트는 재귀 분할(recursive partitioning) 방법에 기반을 둔 다중회귀 분석 기법의 일종으로 특히 연구 자료의 표본 크기가 작은 경우나 세 개 이상의 독립변수 간

다중 회귀분석은 여러 잠재적 변인/독립변수 중 어떤 것들이 종속 변수(본 연구에서는 ‘응’과 ‘어’의 출현)의 변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지 또 그 영향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산정하는 통계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언어 내적 변인과 네 개의 언어 외적 변인이 다중 회귀분석에서 점검되었다(〈표 2〉 참조).

먼저 언어 내적 변인으로는 전영옥(2006, 2015)가 제안한 대로 ‘응’과 ‘어’가 담화 의미에 따라 다른 선호도로 사용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두 표현의) 화용적 의미/기능이 점검되었다. 전영옥(2006)은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원의 구어 전사 말뭉치 자료를 바탕으로 ‘어’의 주요 담화적 의미/기능을 여섯 유형¹²⁾으로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 여섯 가지 기능의 기술을 선행 연구(전영옥 2015; Pyun 2009)와 영상 자료의 실제 사용례를 참조하여 약간 수정하고, ‘다른 사람의 부름이나 걸려 온 전화에 응답할 때 쓰는 말’¹³⁾, ‘어떤 상황이나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는 말’, ‘다른 사람의 진술/질문/요청에 대해 답변을 보류하는 말’, ‘자기가 한 말을 강조하는 말’을 추가하여 〈표 2〉와 같이 ‘응’과 ‘어’의 의미/기능을 분류하였다.

고차 교호작용(high-order interactions)이 있는 경우에도 별문제 없이 분석이 가능하다 (Levshina 2015). 이 두 분석 기법은 앞의 골드바브 엑스를 활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 12) 전영옥(2006: 126)이 ‘어’의 주요 의미로 제안한 여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전영옥(2015: 152)은 또한 이들 의미가 모두 ‘응’에 의해서도 표현됨을 보인다.
- (1) 상대방의 말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묻는 말에 대답하는 말
 - (2)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반응을 나타내는 말
 - (3) 다음 말이 생각나지 않아 약간 시간을 끌려고 내는 말
 - (4) (억양을 올리며 발음하여) 상대방에게 자기 생각에 동의를 구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말
 - (5) (말의 끝에 위치하며 올림 억양으로 발음하여)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때 자기주장이 더 옳지 않느냐고 상대방에게 반문하는 말
 - (6) 놀람이나 감탄의 느낌을 나타내는 말
- 13) 이와 비슷한 의미는 ‘어’의 경우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사전〉에 ‘부름에 응할 때 내는 소리’로, ‘응’의 경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부름에 응할 때 쓰는 말’로 포함되어 있다.

〈표 2〉 다중회귀분석에서 분석된 잠재적 변인과 각 변인의 개별 요인들

잠재적 변인	개별 요인들
회용적 의미/기능	1) 대화 상대자의 평서적, 감탄적, 의례적 진술/말이나 행동에 대한 청자의 인지나 긍정을 나타내는 말(b)* 2) 대화 상대자의 질문/요청/제안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때 쓰는 말(a) 3) 말차례 유지나 말끝기, 시간 벌기 목적으로 사용되는 말(f) 4) 대화 상대자에게 어떤 요구나 질문을 한 후 재촉하거나 동의를 구할 때 쓰는 말(r) 5) 대화 상대자의 발화 내용을 다시 질의할 때/반문할 때 쓰는 말(e) 6) (놀라움, 반기움, 불편함 등을 표현하며) 어떤 상황이나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는 말(t) 7) 다른 사람의 부름이나 걸려 온 전화에 응답할 때 쓰는 말(c) 8) 다른 사람의 진술/질문/요청에 대해 답변을 보류하는 말(n) 9) 자기가 한 말을 강조하는 말(s) 10) 감정을 표현하거나 별 뜻 없는 감탄의 말(x) 11) 기타 기능을 하는 말/(불분명한 경우)(o)
화자의 성별	남성, 여성
화자의 연령대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불분명한 경우]
청자의 성별	남성, 여성, [독백과 불분명한 경우]
분석대상 매체	드라마 영상 속 발화, 드라마 대본

[참고: *각 회용적 의미 뒤에 표시된 알파벳 글자는 통계분석을 위한 코딩 시 사용된 것임]

언어 외적 변인으로는 화자의 성별, 연령대, 청자의 성별, 분석대상 매체가 분석되었다. 화자와 청자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연령대는 10년 단위로 10대 이하부터 50대 이상까지로 구분되었다. 화·청자의 연령 관계는 연소자가 연장자에게 응/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던 실제 드라마 영상 속 발화와 드라마 대본의 차이가 또한 언어 외적 변인에 포함되었다. 드라마 대본의 사용례는 대본 작가의 ‘응’과 ‘어’의 변인에 대한 무의식적 지식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발화 자료에서 추출한 사용례들은 통계 처리에 용이하도록 적절한 코딩 작업을 거쳐서 골드바브 토큰 파일과 엑셀 파일로 각각 저장한 후 골드바브 엑스의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LVS의 컨디셔널 인퍼런스 트리와 랜덤 포리스트 분석을 통하여 ‘응’과 ‘어’의 변이에 유의미한 변인들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하였다.

3. 연구 결과와 논의

3.1. 변이형의 분포

자료 분석 결과 드라마 영상 발화에서는 2,046개, 드라마 대본에서는 1,156개의 사용례(토큰(token))가 발견되었다. 영상 발화에서는 ‘응’과 ‘어’의 경계에 있는 모호한 사례들도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토큰에서 제외하였다. {예}와 {네}는 하위 변이형으로 각각 ‘예, 예’와 ‘네, 네’가 관찰(강현석 2009 참조)되었지만 <표 3>이 보여주듯이 {응}과 {어}는 더 다양한 하위 변이형들을 보였다(앞으로 ‘응’의 하위 변이형을 모두 지칭할 때는 {응}으로 표기하며, {어}도 ‘어’의 모든 하위 변이형을 총칭할 때 사용한다).¹⁴⁾

{어}의 변이형으로는 ‘어’와 ‘어어/어~’, ‘어어어/어~~’ 변이형들¹⁵⁾이 발견되었는데 뒤의 두 변이형은 ‘어’를 길게 끄는 정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어.어’와 ‘어.어.어’도 또한 관찰되었는데, 이 둘은 ‘어어’나 ‘어어어’와는 달리 ‘어’가 길게 이어지지 않고 짧은 ‘어’가 반복되는 형태이다. ‘어’의 모음을 변형시킨 ‘오’도 아주 드물지만 젊은 여성화자의 발화 자료에서 발견되었다. {응}의 변이형으로는 ‘응’, ‘으응’, ‘으으응’이 주 변이형이었는데, ‘으응’과 ‘으으응’은 ‘응’을 길게 끄는 정도에 따라 구분된 것이다. ‘어.어’와 ‘어.어.어’와는 달리 ‘응.응’과 ‘응.응.응’ 변이형은 아주 드물게(총 5회) 발견되었으며, ‘응’의 ‘으’ 모음을 변형시킨 ‘엉’, ‘응’, ‘응’, ‘으우응응응’ 변이형도 드물지만 대본 자료에서 주로 관찰되었다. {어} 변이형들의 총 토큰 수는 2,196개였고 전체의 69%를 차지하였으며, {응} 변이형들은 1,006개(31%)였다. 세종 말뭉치의 (준)구어 자료를 분석한 전영옥(2015)는 ‘응’과 ‘어’ 이외의 다른 변이형들은 논의하지 않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전체 토큰 1,472개 중 ‘어’가 63%,

14) 본 논문의 한 심사위원이 지적하였듯이 {응}의 특정 하위 변이형은 {응}의 여러 기능 중 특정 기능과 더 연관되어 있을 수 있으며, {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가능성에 대한 탐구는 통계 기법의 제약 등의 이유로 본 연구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힌다.

15) 대본 중 어떤 대본들은 길이가 긴 ‘어’를 ‘어어’, ‘어어어’로 표기하고 다른 대본들은 ‘어~’, ‘어~~’로 표기하였다.

‘응’이 37%의 비율을 보여 본 연구보다 ‘응’ 변이형의 비율이 조금 높았다.

〈표 3〉 {어}과 {어}의 변이형들과 자료에서 발견된 토큰 수와 비율

변이형	영상자료	대본자료	합계
	토큰수 (비율)	토큰수 (비율)	토큰수 (비율)
①어	913 (45%)	545 (47%)	1,458 (46%)
②어어	366 (18%)	238 (21%)	604 (19%)
③어어어	69 (3%)	30 (3%)	99 (3%)
④어.어	16 (1%)	4 (0%)	20 (1%)
⑤어.어.어	11 (1%)	2 (0%)	13 (0%)
오	2 (0%)		2 (0%)
{어}의 합 (비율)	1,377 (67%)	819 (71%)	2,196 (69%)
⑥응	498 (24%)	290 (25%)	788 (25%)
⑦으응	140 (7%)	28 (2%)	168 (5%)
⑧으으응	25 (1%)	5 (0%)	30 (1%)
응.응	2 (0%)		2 (0%)
응.응.응	2 (0%)	1 (0%)	3 (0%)
⑨엇	2 (0%)	8 (1%)	10 (0%)
응		2 (0%)	2 (0%)
응		2 (0%)	2 (0%)
으우응응응		1 (0%)	1 (0%)
{응}의 합 (비율)	669 (33%)	337 (29%)	1,006 (31%)
총합	2,046 (100%)	1,156 (100%)	3,202 (전체)

[참고: 위 표의 숫자가 표시된 변이형들은 토큰수가 10개 이상이 되어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의 개별 요인으로 포함된 것들임]

앞서 언급한 대로 대본 자료(1,156개)에서보다 영상 자료(2,046개)에서 훨씬 더 많은 토큰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감탄사적 언사는 배우들이 대본에 없어도 맥락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발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강현석 2009 참조).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들(안의정 2006; 전영옥 2015)의 결과와 같이 ‘어’ (1,458)가 ‘응’(788)보다 높은 빈도로 발견되었다. 아래 (1)은 빈도수가 세 개 이상인 변이형들을 출현 빈도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1) 변이형 출현 빈도에 따른 순위

1) 영상 자료

어(913)>응(498)>어어(366)>으응(140)>어어어(69)>으으응(25)>어.어(16)
어.어.어(11)

2) 대본 자료

어(545)>응(290)>어어(238)>어어어(30)>으응(28)>영(8)>으으응(5)>어.어(4)

예상과는 다르게 (1)이 보여주듯이 영상 자료와 대본 자료는 주요 변이형의 순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었다. 차이점은 영상 자료에서는 ‘으응(140)>어어어(69)’의 순위를 보인 반면 대본 대화에서는 두 변이형의 수효가 비슷했다는 점(어어어(30), 으응(28))과 연기 발화에서는 두 번만 관찰되었던 ‘영’이 대본 대화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8개) 발견된 점뿐이었다.

3.2. 골드바브 엑스의 회귀분석 결과

앞서 논의했던 언어적, 비언어적 요인들 중 어떤 변인들이 {응}과 {어}의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일상 대화에 더 근접한 영상 발화 자료를 대상으로 먼저 골드바브 엑스를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의 첫 번째 열(column)의 변이형 중 전체 자료에서 10개 이상의 사용례가 발견된 변이형 9개를, 즉 ①(‘어’)부터 ⑨(‘영’)까지를 각각 아라비아 숫자로 코딩한 후 이들을 다시 {응} 변이형들은 {응}으로 {어} 변이형들은 {어}로 재(再)코딩(recoding)하여 분석하였다. 골드바브 엑스 분석에서는 ‘화용적 의미’ 변인의 ‘기타 기능을 하는 말/불분명한 경우’(<표 2> 참조), ‘화자의 연령대’ 요인의 ‘불분명한 경우’, ‘청자의 성별’ 요인의 ‘독백과 불분명한 경우’는 모두 슬래시로 코딩하였는데, 골드바브 분석에서는 어떤 변인의 특정 개별 요인이 슬래시로 코딩된 경우(즉 결측값(missing values)을 포함한 경우)에도 슬래시를 포함한 토큰이 분석 대상에 포함되고 다른 개별 요인들의 요인 비중(factor weight: <표 4> 참조)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

〈표 4〉 {응}을 적용가로 한 영상 발화에서의 {응}~{어} 변이의 골드바브 분석

잠재적 변인	요인 비중	{응}의 비율	사례수
[화용적 의미/기능]			
청자에 대한 요구/질문 후 재촉/촉구	.732	54%	224
자기가 한 말을 강조	.709	51%	178
질문/요청/제안에 대한 긍정적 응답	.654	44%	352
상대방의 발화 내용에 대한 반문	.537	33%	109
감정을 표현하거나 별 뜻 없는 감탄의 말	.536	35%	162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인지/긍정	.517	33%	335
타인의 부름이나 전화에 응답	.455	26%	99
말차례 유지/시간 벌기	.269	14%	64
(반가움, 당황함 등을 표현하며) 어떤 상황이나 상대방의 말에 대해 반응하기	.216	11%	457
(범위)	(516)		
[화자의 연령대]			
10대 이하	.450	25%	463
20대	.468	29%	440
30대	.502	34%	553
40대	.484	34%	369
50대 이상	.688	49%	213
(범위)	(238)		
[화자의 성별]			
남성	.443	32%	806
여성	.537	33%	1233
(범위)	(94)		
[청자의 성별](유의미하지 않음)			
남성	[.520]	36%	909
여성	[.479]	31%	884

골드바브 엑스 분석 결과(〈표 4 참조〉) ‘청자의 성별’을 제외한 변인들이 골드바브 엑스의 스텝업-스텝다운 분석 (step-up step-down analysis)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순서는 ‘화용적 의미/기능 → 화자의 연령대 → 화자의 성별’ 순이었다. 하지만 스텝업-스텝다운 분석의 결과는 늘 정확한 것은 아니고(Flom & Cassell 2007 참조), 또한 요인 강도

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인 '범위'(range)¹⁶의 경우 '화자의 성별'의 범위가 단지 94에 불과해서 이 요인의 영향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더라도 실제 영향력은 미약함을 나타낸다. 이 변인의 변이에 대한 영향도는 재귀 분할 방법에 기반을 둔 다른 두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더 명확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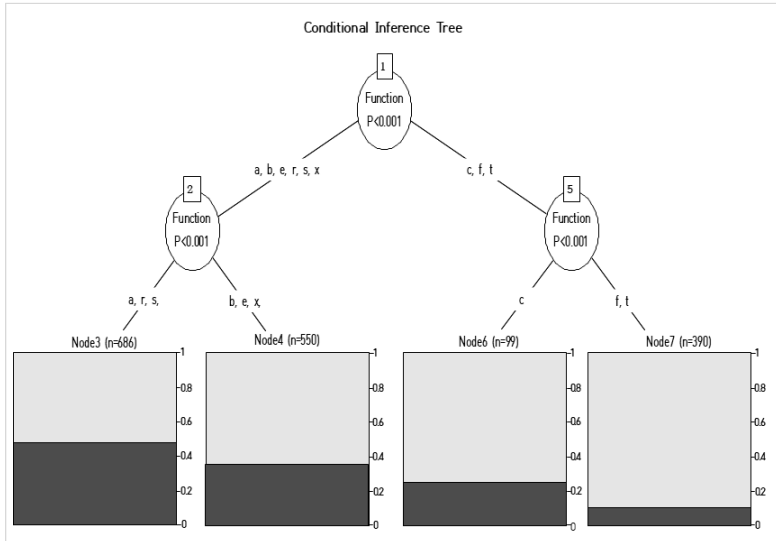
3.3. 컨디셔널 인퍼런스 트리와 랜덤 포리스트 분석의 결과

개별 요인들의 범위가 작은, 즉 요인 비중(factor weight/probability)의 차이가 작은 잠재적 변인들의 실제 영향 정도를 더 검증하기 위해서 컨디셔널 인퍼런스 트리¹⁷와 랜덤 포리스트 분석¹⁸을 LVS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앞의 골드바브 분석의 코딩에서 슬래시가 포함된 사용례는 이 두 분석에서는 슬래시 방식의 코딩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컨디셔널 인퍼런스 트리의 분석 결과는 앞서 이루어진 골드바브 로지스틱 회귀분석과의 결과와는 달랐으며, {응}과 {어}의 변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변인으로 분석된 것은 '화용적 기능'(Function)뿐이었다 ([그림 1] 참조).

16) <표 4>에서 요인 비중은 각 개별 요인이 {응}을 실현하는 데 어느 정도 공헌하는가를 보이며 그 수치가 높을수록 공헌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요인 비중의 '범위'는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의 차(difference)에 100을 곱한 값이다.

17) 컨디셔널 인퍼런스 트리는 분석 결과를 나무(tree) 모양으로 그려주는데([그림 1] 참조), 가장 중요한 제약은 나무의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아래에 위치할수록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Hothorn, Hornik & Zeileis 2006).

18) 랜덤 포리스트는 잠재적 변인들의 중요성을 변인들은 y축으로, 지니 (중요도) 값(Gini Importance)은 x축으로 해서 작성된 그림을 통해서 보여준다([그림 2] 참조). 그림에 그려진 점선 오른쪽에 위치해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이고 오른쪽에 위치할수록, 즉 지니 (중요도) 값이 클수록 변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Couronné, Probst & Boulesteix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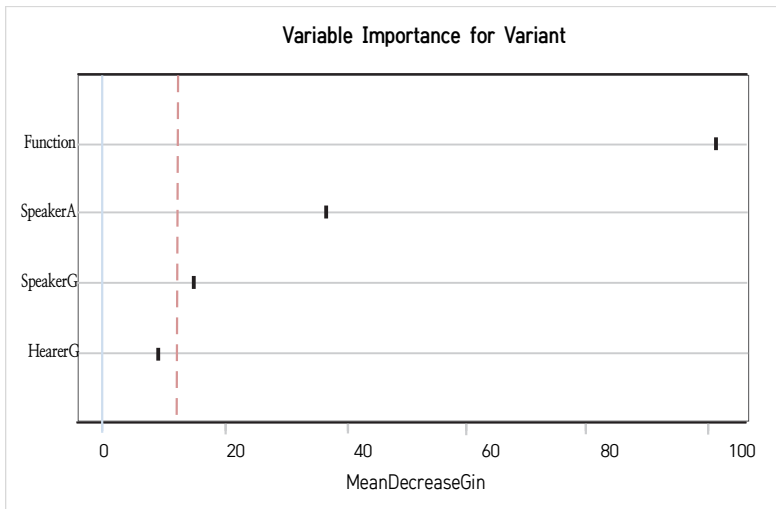
[그림 1] 영상 발화에서의 {응}~{어} 변이에 대한 컨디셔널 인퍼런스 트리 분석 결과

‘화용적 기능’은 트리의 가장 높은 정점과 중간점에 위치해서 모든 사용례의 설명에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되었으며, 나머지 세 변인, 즉 ‘화자의 연령’, ‘화자의 성별’, ‘청자의 성별’은 트리의 어떤 지점에도 나타나지 않아 자료의 설명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였다.¹⁹⁾ 이 결과는 ‘화용적 기능’ 요인이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유의미한 변인으로 선택되었던 ‘화자의 연령’과 ‘화자의 성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자료 설명력, 즉 {응}과 {어}의 변이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반면 또 다른 다중회귀분석인 랜덤 포리스트는 앞의 골드바브 엑스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그림 2] 참조). 분석 결과 화용적 기능(Function), 화자의 연령(SpeakerA(ge)), 화자의 성별(SpeakerG(ender))의 지니 값(Gini value/MeanDecreaseGini)은 모두 점선의 오른쪽에 위치해서 이들 모두 {응}

19) [그림 1]에서 화용적 기능(Function)은 {응}의 사용 비율에 따라 ‘a, r, s’, ‘b, e, x’, ‘c’, ‘f, t’(각 철자가 의미하는 화용적 기능은 <표 2> 참조)로 나뉘는데, 하단의 네 4각형은 ‘a, r, s’의 기능으로 {응}이 가장 높은 비율(50% 조금 미달)로 사용되고, ‘f, t’의 기능으로는 가장 낮은 비율(약 10%)로, 나머지 둘은 중간적 비율로 사용됨을 보여준다.

과 {어}의 변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다고 분석되었지만, 청자의 성별(HearerGender)은 지니 값이 점선의 왼쪽에 위치해서 그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분석에서도 ‘화용적 기능’과 다른 두 변인, 즉 ‘화자의 연령’과 ‘화자의 성별’은 유의미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화용적 기능’(Function)의 지니(Gini) 값은 골드바브 분석의 범위 값(<표 4> 참조)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두 변인의 지니 값과는 큰 차이를 보였는데, ‘화자의 연령’과 ‘화자의 성별’의 지니 값을 합해도 ‘담화 기능’의 지니 값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림 2] 영상 발화에서의 {응}~{어} 변이의 랜덤 포리스트 분석 결과

4. 연구 논제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의 함축

본 연구는 이제 앞서 제기했던 연구 문제들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얻은 분석 결과들의 연구 논제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화자와 청자의 성별 요인: 먼저 본 연구의 통계 분석 결과들은 ‘청자의

성별'이 화자들의 {응}과 {어} 사용에 있어서 관찰되는 변이에 유의미한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인다. 유형선(2004)가 제기하였던 화자의 성별에 관계 없이 화자들이 남성 청자보다 여성 청자에게 {응} 변이형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주장은 본 연구의 어떤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도 유효하다고 판별되지 않았다. 오히려 백분율 상으로는 남성 화자에게 {응} 변이형을 더 사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표 4〉 참조). 화자의 성별 요인에 대해서는 통계 기법에 따라 다소 다른 분석 결과를 보였다. 골드바브 엑스의 스텝업/스텝다운 분석과 랜덤 포리스트 분석에서는 이 변인이 {응}과 {어}의 사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였지만, 컨디셔널 인퍼런스 트리 분석은 이 변인이 {응}과 {어} 변이의 주요 요인이 아니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골드바브 엑스 분석이 보이는 이 요인의 미세한 범위 값(94(〈표 4〉 참조))과 화자의 성별 요인이 랜덤 포리스트 분석에서 유의미한 변인으로 선택된 셋 중에서 가장 작은 지니 값을 갖는다는 사실(〈그림 2〉 참조) 역시 화자의 성별 요인은 적어도 {응}과 {어}의 사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라는 것을 함축한다. 이 결과는 화자의 성별 요인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한국어에서의 {예}와 {네} 변이(강현석 2009; 송인성 2019 등)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화용적 기능 요인: 이 연구의 모든 회귀분석은 {응}과 {어}의 화용적 담화 기능이 {응}과 {어}의 변이에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준다. 〈표 5〉는 영상과 대본의 통합 자료를 대상으로 한 골드바브 엑스 회귀분석의 결과 중 '화용적 기능/의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가장 높은 비율로 {응}을 사용하는 기능은 '청자에 대한 요구/질문 후 재촉/촉구', '자기가 한 말을 강조', '질문/요청/제안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었으며, 가장 높은 비율로 {어}를 사용하는 기능은 '(반가움, 당황함 등을 표현하며) 어떤 상황이나 상대방 말에 대해 반응하기', '말차례 유지/시간 벌기', '타인의 진술/질문/요청에 대한 답변 보류'였다.

<표 5> 영상과 대본 자료에서의 {응}~{어} 변이의 '화용적 의미/기능'에 대한 골드바브 분석 결과

[화용적 의미/기능]	요인 비중	{응}의 비율	사례수
청자에 대한 요구/질문 후 재촉/촉구	.833	66% (57%) ²⁰⁾	345
자기가 한 말을 강조	.750	52% (39%)	226
질문/요청/제안에 대한 긍정적 응답	.641	40%	638
상대방의 발화 내용에 대한 반문	.578	33% (20%)	220
감정을 표현하거나 별 뜻 없는 감탄의 말	.507	32%	174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인지/긍정	.499	29%	504
타인의 부름이나 전화에 응답	.454	23%	168
타인의 진술/질문/요청에 대한 답변보류	.338	16% (29%)	25
말차례 유지/시간 벌기	.189	9% (2%)	113
(반가움, 당황함 등을 표현하며) 어떤 상황이나 상대방의 말에 대해 반응하기	.184	8% (6%)	692
전체 사용례 중 {응}의 비율		31% (37%)	

전영옥(2015)의 ‘응’과 ‘어’의 담화 기능 구분은 본 연구와는 다소 달랐지만 이 연구도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즉 이 연구에서 전체 ‘응’ 사용의 평균 비율은 37%였지만 ‘응답 재촉하기’와 ‘강조하기’는 각각 57%(53/76)와 39%(13/33)의 ‘응’ 사용 비율을 보인 반면, ‘시간벌기’와 ‘(감정적) 반응’은 각각 2%(2/95)와 6%(8/143)의 아주 낮은 ‘응’ 사용 비율을 나타내었다.²¹⁾ 두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어}의 사용이 {응}보다는 7:3~6:4 정도의 비율로 많고, 특히 ‘말차례 유지/시간벌기’와 ‘(반가움, 당황함 등을 표현하며) 어떤 상황이나 상대방 말에 대해 반응하기’의 경우는 ‘어’가 압도적 변이형으로 사용되지만, ‘재촉, 촉구’의 경우는 ‘응’이 주 변이

20) 괄호 안에 기재된 비율은 세종말뭉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전영옥(2015)의 분석 결과이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전영옥(2015)과 본 연구의 ‘응’과 ‘어’의 세부 기능 분류는 차이가 있는데, <표 5>에 기재된 괄호 내의 비율은 두 연구의 세부 기능 분류가 동일한 경우에만 입력되어 있다.

21) 전영옥(2015)는 본 연구의 ‘(반가움, 당황함 등을 표현하며) 어떤 상황이나 상대방의 말에 대해 반응하기’를 둘로, 즉 ‘상황에 대한 반응하기’와 ‘타인에 대한 반응’으로 구분한다. 전영옥(2015)의 자료에서 ‘응’은 ‘상황에 대한 반응하기’로는 5%(6/119)의 비율로, ‘타인에 대한 반응’으로는 8%(2/24)의 비율로 사용되어서 이 두 세부 기능으로는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어’가 압도적으로 사용되는 변이형임을 보여준다.

형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자의 연령 요인: 화자의 연령 요인은 컨디셔널 인퍼런스 트리 분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응}과 {어}의 변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한 골드바브 로지스틱 회귀분석(〈표 6〉 참조)에서도 이 요인은 유의미한 변인으로 분석되었고 범위 값도 267로 나타나서 화자 성별 요인의 94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별 결과를 보면 20대와 30대의 경우는 요인 비중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대체로 화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어}를 상대적으로 많이 쓰고 연령대가 높은 화자들은 {응}을 상대적으로 더 사용한다고 분석되었다. 즉 {응}의 사용 비율을 보면 50대 이상에서는 49%인 반면 10대 이하에서는 그 절반 정도인 25%에 불과하였다. 조음적 관점에서는 모음과 비자음의 결합인 ‘응’보다는 단순 모음인 ‘어’가 발음하기 쉽고 조음적 노력(articulatory efforts)이 덜 필요한데, 이 세대 간 차이가 단순한 연령대 차이(age grading)에 기인하는지, 즉 연령대의 특성으로 젊은 연령대가 나이 든 연령대보다 {어}를 상대적으로 많이 쓰고 이 연령대 차이가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 중인 언어 변화, 즉 {응}에서 {어}로의 언어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지는 세밀한 방법론에 바탕을 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표 6〉 영상과 대본 자료에서의 {응}~{어} 변이의 ‘화자의 연령대’에 대한 골드바브 분석 결과

[화자의 연령대]	요인 비중	{응}의 비율	사례수
10대 이하	.442	25%	779
20대	.486	28%	747
30대	.485	31%	886
40대	.515	37%	498
50대 이상	.709	49%	279
(범위)	[267]		

자료 유형 요인: 앞서 언급했던 대로 영상 자료에서는 대본 자료에서보다 훨씬 많은 사용례(2,046개 : 1,156개)가 발견되었고, 또한 상당한 비율로 연

기자들은 대본에 있는 변이형과는 다른 변이형을 발화하였는데, 대본에는 ‘응’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어’로 발화하는 경우, 그 반대의 경우, 또 대본에는 ‘어’로 되어 있지만 ‘어어’나 ‘어.어.’로 발화하는 경우가 대표적 예들이었다.

〈표 7〉 영상과 대본 자료에서의 {응}~{어} 변이의 ‘자료 유형’에 대한 골드바브 분석 결과

[자료 유형]	요인 비중	{응}의 비율	사례수
영상 자료	[.514]	33%	2,040
대본 자료	[.475]	29%	1,150

하지만 {응}과 {어}의 주요 변이형들은 영상 자료와 대본 자료에서 사용 양태가 대체로 유사했으며, 따라서 자료 유형은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한 골드바브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응}과 {어} 변이의 유의미한 변인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이는 영상 자료에서는 {예}가, 대본 자료에서는 {네}가 우세 변이형으로 나타났던 강현석(2009)의 결과와는 아주 다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영상 자료와 대본 자료는 각각 33%와 29%의 {응}사용 비율(〈표 7〉 참조)을 보였으며²²⁾ 주요 변이형의 사용 순위 역시 비슷한 양태를 보였다(3장 1절의 (1) 참조). 이러한 결과는 대본을 집필한 작가들도 {응}과 {어}의 화용적 기능 차이와 사회적 차이에 대해 무의식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5. 온라인 인식 조사의 결과와 논의

본 연구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설문 조사 ‘네이버 폼’을 이용하여 설문 대상자에게 링크를 전송하고 응답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인식 조사의 문항([부록] 참조)은 피설문자의

22) 이 분석은 ‘어’의 주요 변이형 5개와 ‘응’의 주요 변이형 4개의 사용례를 대상으로 하므로 군소 변이형의 사용례 12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개인 정보에 관한 두 문항을 제외하면 모두 여섯 개로, ‘응’과 ‘어’ 변이의 언어 외적 요인(화자의 성별, 연령대)에 관련된 문항 둘, 언어 내적 요인인 화용적 의미에 관련된 문항 셋, 그리고 피조사자의 ‘응’과 ‘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 의견을 묻는 기술 형식의 문항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총 127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는데,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가 각각 77명(61%), 50명(39%)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27명(21%), 30대 33명(26%), 40대 26명(20%), 50대 28명(22%), 60대 이상이 13명(10%)이었다.

1번 문항인 ‘응’과 ‘어’ 사용에 대한 남녀 간 성차에 대한 질문은 차이가 없다는 답변이 49%(62/12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응’을 사용한다는 답변이 39%(49/127), 그 반대의 응답이 12%(15/127)였다(1명은 답하지 않았음). 남녀 응답자들은 유사한 답변 양태를 보였다($\chi^2=2.77$, $df=2$, $p=0.25$). 2번 문항인 ‘응’과 ‘어’ 사용의 세대 간 차이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가 ‘응’을 더 사용한다는 답변이 48%(61/127), 세대 간 차이가 없다는 답변이 39%(49/127), 나이 든 세대가 ‘응’을 더 사용한다는 답변이 13%(17/127)를 차지해서, 본 연구의 영상 및 대본 자료 분석 결과와는 다른 인식을 보였다. 이러한 응답 양태는 피조사자의 연령대²³⁾와는 무관($\chi^2=1.32$, $df=4$, $p=0.86$)하였고 일관적이었다.

담화/화용적 기능에 대한 세 문항의 분석 결과, 말을 더듬으며/끝머 얘기 할 때(즉, 시간 별기의 기능으로) ‘어어’를 ‘으응’보다 많이 쓴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72%(92/127)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반응어로는 ‘응’보다는 ‘어’를 더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0%(76/127)였으며,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를 한 후 조를 때는 ‘응’을 ‘어’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는 진술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는 66%(84/127)였다. 이러한 인식은 모두 본 연구의 영상과 대본 자료의 분석 결과와 큰 틀에서 부합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첫째, 본 설문에서 구체적 상황을 예로 제시하였다는 점, 둘째, ‘응’과 ‘어’의 사용 빈도 차이가 가장 명확한 담화 기능

23) 연령대를 셋으로 나누어 20대 이하, 30~40대, 50대 이상으로 피조사자들의 응답을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셋을 설문 문항으로 채택해서 피설문자들이 두 감탄사의 이들 기능에 있어서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데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6번 문항인 ‘응’과 ‘어’의 (가능한) 차이에 대한 자유 기술 질문은 67명이 응답했으며 다양한 형태를 보였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된 유형은 ‘응’이 ‘어’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애교스럽다’는 답변(15명)이었으며, 그 밖에도 ‘별 차이 없다/개인적 선호 문제다’라는 답변(6명), ‘응’이 ‘어’보다 더 명확한 동의를 나타낸다’라는 답변(4명), ‘문자 대화에서는 ‘응’을 ‘어’보다 많이 쓴다’는 답변(4명), ‘화자의 성별보다는 청자의 성별, 즉 여자일 때 더 많이 쓴다’는 답변(3명)이 또한 관찰되었다. ‘응’이 ‘어’보다 좀 더 부드럽고 애교스럽다는 인식은 유형선(2004)도 언급했듯이 ‘응’이 비자음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며, 이 ‘애교스럽다’는 인식이 아마도 앞선 2번 문항에서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보다 더 ‘응’을 발화한다는 한다는 답변의 주요 원인이 되고, 또한 1번 문항에서 적지 않은 응답자가 여자가 남자보다 더 이 변이형을 사용하리라고 추측한 원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응’이 ‘어’보다 명확한 동의를 나타낸다는 인식은 본 연구(〈표 5〉)의 ‘질문/요청/제안에 대한 긍정적 응답’의 요인 비중 참조)와 전영옥(2015: 152)의 자료 분석 결과와 일정 부분 일치한다.

6. 결어

본 연구는 경어 맥락에서 주로 사용되는 ‘예’와 ‘네’의 비경어체 대응 표현인 ‘응’과 ‘어’의 사회언어학적 변이 양상을 분석하였다. ‘응/어’와 ‘예/네’는 대응적 담화 표현이지만, 언중들은 이들의 사용 양태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화자의 성별 요인이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는 후자와는 달리 ‘응/어’의 사용에는 이 변이가 주요 요인으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분석되었다.

한국어에서의 ‘응’과 ‘어’의 변이는 두 변이형의 화용적 기능이라는 언어 내적 요인에 의해 상당 부분 좌우되고 언어 외적 요인으로는 화자의 연령이 관여한다는 결과를 본 연구의 통계 분석들은 제시하였다. 화용적 기능에 따

른 ‘응’의 출현 비율은 ‘어떤 상황/상대방의 말에 대해 반응하기’에서는 11%에 불과하지만 ‘청자에 대한 요구/질문 후 재촉/촉구’에서는 54%에 이를 정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더불어 사회적 요인으로는 연령대가 높은 화자들이 젊은 화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을 많이 사용하고 젊은 화자들은 ‘어’에 대한 선호도가 나이 든 연령대의 화자들보다 더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 결과는 인식 조사의 결과에 나타났듯이 아직 언중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단계로 보이며, 앞서 언급했듯이 단순한 연령대 변이(age grading)일 수도 있고, 진행 중인 언어 변화일 수도 있다. 본 연구의 이 결과는 세심한 방법론에 바탕을 둔 (같은 집단을 점검하는) 종단 연구나 이 연구와는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후속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변이형의 운율적(prosodic) 자질 중 모음 길이(vowel length)는 구분하여 분석하였지만 억양(intonation)적 특징은 분석에 충분히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이 제한점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화자의 성별 요인은 비록 두 유형의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미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지만, 통계 분석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고(구체적으로 컨디셔널 인퍼런스 트리 분석은 골드바브 엑스와 랜덤 포리스트 분석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변이에 대한 설명력이 크지 않아서, ‘예/네’ 변이에서의 화자 성별 요인과 같은 중요한 변인으로는 기능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의 의의는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응’과 ‘어’의 변이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첫 시도라는 점과 한국어 사회·화용(socio-pragmatic) 연구에서 덜 활용되었던 통계적 도구들을 자료 분석에 충분히 활용하였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루어질 더 심층적인 후속 연구들에 본 연구가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강우원(2002), <담화표지 ‘아’와 ‘어’의 특성 비교 연구>, 《우리말연구》 12, 241-257, 우리말학회. Kang, W. W. (2002). A comparative study of discourse particles ‘ah’ and

- 'eo'. *Urimalyeongu*, 12, 241-257.
- 강현석(2009), <국어 담화 표지 '예'와 '네'의 사용에 나타나는 변이에 대한 연구>, 《사회언어학》 17(2), 57-86, 한국사회언어학회. Kang, H. S. (2009). Variation in speakers' use of Korean discourse particles 'ye' and 'ne'.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17(2), 57-86.
- 강현석·김민지(2017), <인스턴트 메신저 카카오톡의 대화 자료에 나타난 '예'와 '네'의 변이 양상>, 《사회언어학》 25(3), 1-27, 한국사회언어학회. Kang, H. S. & Kim, M. J. (2017). Aspects of variation observed in the use of 'ye' and 'ne' in Kakao Talk dialogue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5(3), 1-27.
- 김하수(1989), <언어 행위와 듣는 이의 신호에 관한 화용론적 분석 시도: 담화 속의 '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4(1), 55-70,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Kim, H. S. (1989). Speech and hearers' response: A discourse-analytic study of 'ne'.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14(1) 55-70.
- 김혜숙(2009), <성별에 따른 '네'와 '예'의 사용과 변화 양상>, 《언어연구》 25(1), 85-101, 한국현대언어학회. Kim, H. S. (2009). The gendered use and change of 'ne' and 'ye'. *Eoneoyeongu*, 25(1), 85-101.
- 송인성(2015), <국어 담화표지의 기능과 운율>,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Song, I. S. (2015). *The functions and prosody of Korean discourse partic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 송인성(2018), <'네/예'의 담화 기능과 운율 특성>, 《한국어학》 81, 169-196. 한국어학회. Song, I. S. (2018). The discourse functions and prosodic features of 'ne/ye'. *Hangukeohak*, 81, 169-196.
- 송인성(2019), <성별, 연령 및 역할에 따른 '네'와 '예'의 실현 양상>, 《영주어문》 43, 91-118, 영주어문학회. Song, I. S. (2019). Variation of 'ne' and 'ye' across genders, age groups, and functions. *Yeongjueomun*, 43, 91-118.
- 안의정(2006), 《국어사전에서의 구어 어휘 선정과 기술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hn, E. J. (2006). *A study of the selection and description of spoken headwords for Korean dictionar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유형선(2004), <남성과 여성의 언어 사용 성향에 대한 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14, 21-34,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Yu, H. S. (2004). A study of genderlectal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Suncheonhyang Inmungwahaknonchong*, 14, 21-34.
- 이원표(1993), <의지감탄사 ‘예, 글썸, 아니’의 담화분석>, 《人文科學》 69-70, 139-185,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Lee, W. P. (1993). A discourse-analytic study of discourse markers ‘ye, geulsse, ani’. *Inmungwahak*, 69-70, 139-185.
- 이필영(1999), <국어의 응답 표현에 대한 연구>, 《텍스트언어학》 6, 71-105, 한국텍스트언어학회. Lee, P. Y. (1999). A study of Korean response expressions. *Textlinguistics*, 6, 71-105.
- 이한규(2011), <한국어담화표지어 ‘예’의 의미>, 《현대문법연구》 65, 171-197, 현대문법학회. Lee, H. G. (2011). The meaning of Korean discourse marker ‘ye’. *Studies in Modern Grammar*, 65, 171-197.
- 임선희·김선희(2014), <세종코퍼스분석을 통한 우리말 ‘예/네’의 담화 표지 기능 연구>, 《사회언어학》 22, 203-223, 한국사회언어학회. Im, S. H. & Kim, S. H. (2014). A study of the discourse marking functions of ‘ye/ne’ through Sejong Corpus analysi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2, 203-223.
- 전영옥(2006), <국어 어휘의 사전 기술 방법: 담화표지를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8, 101-143, 한국사전학회. Jeon, Y. O. (2006). Description of discourse markers in dictionaries. *Hanguksajeonhak*, 8, 101-143.
- 전영옥(2015), <감탄사 ‘어’와 ‘응’의 담화 기능 연구>, 《언어와 언어학》 69, 129-162,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Jeon, Y. O. (2015). A study of the pragmatic functions of discourse particles ‘eo’ and ‘eung’. *Eoneowaeoneohak*, 69, 129-162.
- 전정미(2011), <대화의 회고적 기능에서 살펴본 응답어 ‘네’ 연구>, 《우리말글》 52, 55-82, 우리말글학회. Jeon, J. M. (2011). A study of ‘ne’ performing backward looking function in conversation.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52, 55-82.
- Couronné, R., Probst, P., & Boulesteix, A. (2018). Random forest versus logistic regression: A large-scale benchmark experiment. *BMC Bioinformatics*, 19(1), 270-279.
- Flom, P. L. & Cassell, D. L. (2007). Stopping stepwise: Why stepwise and similar selection

- methods are bad, and what you should use. NESUG 2007. SAS Conference. Retrieved on July. 6, 2022, from <https://www.lexjansen.com/pnwsug/2008/DavidCassell-StoppingStepwise.pdf>
- Geeraerts, D. (2018). Lexical variation as a sociolinguistic variable. *Ten Lectures on Cognitive Sociolinguistics. Vol. 8 of Distinguished Lectures in Cognitive Linguistics Series*. Brill.
- Hothorn, T., Hornik, K. & Zeileis, A. (2006). Unbiased recursive partitioning: A conditional inference framework. *Journal of Computational and Graphical Statistics* 15(3), 651–674.
- Levshina, N. (2015). *How to do linguistics with R: Data explorations and statistical analysis*. Benjamins.
- Pyun, D. O. (2009). A corpus-based analysis of Korean ‘yes’ words, yey, ney, and ung: A pedagogical perspective. *Korean Language in America*, 14, 25–46.
- Scrivener, O., Diaz-Campos, M., & Frisby, M. (2016). Language variation suite. Retrieved on July. 16, 2022, from <https://languagevariationsuite.shinyapps.io/Pages/>.
- Sankoff, D., Tagliamonte, S., & Smith, E. (2005). *Goldvarb X: A variable rule application for macintosh and windows*. A joint effort of department of linguistics, University of Toronto & Department of Mathematics and Statistics, University of Ottawa.
- Tagliamonte, S. A. (2006). *Analysing sociolinguistic vari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부 록

‘응’과 ‘어’ 사용에 대한 설문

우리말 대화에서 응답과 반응의 말로 자주 쓰이는 ‘응’과 ‘어’에 대한 설문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 남성
- 여성

귀하의 연령대는 무엇인가요?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이상

1. 아래 세 진술 중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를 골라 주세요)

- 남자와 여자는 ‘응’과 ‘어’의 사용에서 차이가 없다
- 남자가 여자보다 ‘응’을 더 사용한다
- 여자가 남자보다 ‘응’을 더 사용한다

2. 아래 세 진술 중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를 골라 주세요)

-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보다 ‘응’을 더 사용한다
- 나이 든 세대가 젊은 세대보다 ‘응’을 더 사용한다
-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는 ‘응’과 ‘어’ 사용에서 차이가 없다

www.kci.go.kr

3. 말을 더듬으며 얘기할 때 '어어'를 '응응'보다 많이 쓴다

(참 또는 거짓 중 선택) "어어/응응 잘 생각이 안 나."

- 참
- 거짓

4. 예기치 못한 상황을 보고 반응할 때 '응'을 '어'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

(참 또는 거짓 중 선택) "응/어? 영수도 왔네"

- 참
- 거짓

5. 어떤 요구를 한 후 상대방에게 조를 때 '응'을 '어'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

(참 또는 거짓 중 선택) "진숙아, 도와줘, 응/어?"

- 참
- 거짓

6. (응답, 동의, 반응할 때 주로 사용되는) '응'과 '어'가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대화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기술해주세요

(아래에 기술해 주세요)

